



[경제종합]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디지털 전환 총력전 물류·배송 경쟁력 ↑ 04



Economy

코스피	3285.34 (-19.87)	코스닥	1047.36 (+2.40)
금리 (연평균)	1.410 (-0.055)	환율 (원/달러)	1138.10 (+8.40) (7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자경감 효과



高利대출 이자 줄지만 저신용자 소외 불가피

법정최고금리 빛과 그림자

〈上〉 금리 10년 간 19%p 인하

법정최고금리가 연20%로 낮아지면서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생활자금을 고금리로 빌렸다가 이자부담에 허덕이는 사람을 줄이자는 의도지만 오히려 금리인하로 돈을 빌리지 못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리를 내리면 대출조건이 까다로워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금융상품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고금리 연 24%→20%로 인하 고금리 대출 이용 차주 이자경감 208만명 매년 4830억 감소 효과

2금융 4~6등급 중신용자 비중 ↑ 저신용자 소외 불법사금융 내몰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낮아진다. 법정최고금리는 10년전인 2011년 39%에서 2014년 34.9%, 2016년 27.9%, 2018년 24%로 낮아졌다. 문재인정부 들어서는 4년만에 약 8%포인트(p)가 낮아진 셈이다.

◆금리인하로 이자부담 매년 4830억원 줄어

정부가 최고금리를 낮추는 이유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차주의 이자부담을 덜겠다는 의도다. 특히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20%를 넘는 고금리 대출을 받은 차주가 늘었다.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는 주로 연체 리스크가 높은 저소득·저신용자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높아진 이들의 연체가능성을 금리인하로 낮추겠다는 포석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3월 말 20% 초과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차주는 239만명이다. 이 가운데 이자를 20%로 낮추면 약 87%인 208만

명(14조2000억원)의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원씩 줄어든다. 나머지 약 13%인 31만6000명(2조원)은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기간까지 약 3~4년에 걸쳐 고금리 이용이 줄어들 수 있다.

◆대부업, 저신용자 줄고 중신용자 늘어 하지만 금리인하가 반길 일만은 아니다. 필요한 자금을 빌리지 못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 고금리 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제2금융권에서 연체 리스크가 높은 저소득·저신용자를 굳이 연 20% 금리에 맞춰 대출해 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대출심사가 강화되며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저소득·저신용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금리가 15%p 낮아진 10년 동안 대부업 이용 고객은 7등급 이하 저신용자 비중은 감소하고, 4~6등급의 중신용자 비중은 증가했다. 저신용자 비중은 2011년 말 84%에서 2016년 말 70.7%로 감소(13.3%p)한 반면 중신용자의 비중은 2011년 말 16%에서 2016년 말 29.3%로 증가(13.3%) 했다.

특히 신규대출자 중 저신용자의 비중은 2011년 말 67.2%에서 2016년 말 54.9%로 감소(12.2%p)했고, 중신용자의 비중은 같은 기간 31.8%에서 43.2%로 증가(11.3%p)했다.

이수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부업의 이용고객 변화는 차주의 신용도 변화보다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변화일 가능성이 높다”며 “수익성을 보전하기 위해 대부업체 등이 대부대출을 이용하고 있던 기존의 저신용자 고객을 중신용자 고객으로 대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인하 이후 대출만기가 도래하게 되면 저신용자의 대출 재계약이 오히려 어려워져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신용자의 금융소외를 보완 할 정책서민금융 상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반도체’ 삼성·‘가전’ LG, 새 역사 썼다

삼성·LG전자 2분기 잠정실적

삼성전자 영업이익 12.5조 잠정실적 LG전자도 2분기 연속 1조원 넘어

삼성전자반도체 사업이 본격적으로 힘을 내기 시작했다. LG전자가 2분기 연속 영업이익 1조원을 돌파하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삼성전자는 2분기에 매출액 63조원, 영업이익 12조5000억원을 거뒀다고 잠정 실적을 7일 발표했다. <관련기사 3면>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매출액이 18.94%나 늘었다. 전분기(65조3900억원)보다는 3.65% 감소했지만, 2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3.37%나 급증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었던 2018년 3분기 이후 11분기 만에 최

고치다. 전분기보다도 33.26%나 늘어나면서 실적 개선을 본격화했다.

시장 전망치도 한참 뛰어넘었다. 당초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가 2분기 영업이익을 10조원에서 많아야 11조원을 거둘 것으로 내다봤다. 가장 높은 수준도 11조원 중반대, 실제로는 이마저도 1조원 가량 추가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 마저도 놀라게 만들었다.

삼성전자가 이같은 깜짝 실적을 거둘 수 있었던 비결은 반도체 사업 호황이 유력하다. DS사업부만이 전분기만 해도 3조원 수준의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지만, 2분기부터 ‘슈퍼 사이클’ 영향을 받으면서 영업이익 6조원 중후반대로 100% 이상 성장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LG전자도 같은날 2분기 잠정 실적을 통해 꾸준한 성장세를 공식화했다. 매출액 17조 1101억원에 영업이익 1조

1128억원이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각각 48.4%, 65.5% 증가한 것이다. 특히 영업이익이 전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1조원을 넘어섰다. 2분기 기준으로는 2009년 이후 처음이다.

LG전자 실적 개선은 가전 부문이 꾸준히 호황을 이어가는 가운데, OLED TV 판매도 대폭 늘어나기 시작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증권가에서는 H&A사업본부가 7000억원 중후반대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실적을 견인했고, HE사업본부도 수익성을 개선하며 3000억원 초중반대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모바일 사업 철수 효과도 있다. LG전자는 이달말 모바일 사업을 완전히 접기로 한 상황, 2분기부터 실적에 모바일 사업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김재용 기자·한창대 수습기자 juk@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12명으로 집계된 7일 서울 관악구 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를 찾는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뉴스1

4차 유행 초입... 거리두기 최고 격상 고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212명 수도권 중심 2030대 감염 확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가시화되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20·30대 젊은층의 감염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 큰 우려를 낳았다. 정부는 유행이 8월 초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유지하는 한편, 최고 단계 격상도 고려하고 있다.

7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212명으로 집계됐다. 3차 유행이 최정

점을 찍었던 지난해 12월25일 일일 확진자가 1240명 발생한데 이어 두번째로 많은 규모다. 국내 발생 확진자 역시 1168명으로 역대 2위를 기록했다.

신규 확진자 발생은 수도권으로 몰려들었다. 이날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신규 확진자는 990명으로 전체 85%를 차지했다. 특히 20·30대 젊은 층 감염이 급증하며 우려를 낳는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20·30대 중심으로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으며, 백신 접종이 진행 중인 6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전 연령층에서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6월

5주부터 방학 등을 맞이한 20대의 비율이 급증했다”고 말했다.

델타 변이의 위험도 점차 거세지고 있다. 방대본에 따르면 최근 1주간 전체 649건 중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된 건수가 325건으로, 전체 50%를 기록했다. 직전 주(37%)보다 크게 높아진 수치다. 이 중 알파형은 168건(25.9%), 델타형은 153건(23.6%)을 차지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델타변이가 확산되며 다시 4차 유행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4면에 계속>

/이세경 기자 seilee@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 제백신, 코로나19 백신 인도네시아 임상 2·3상 승인받아
- ▲ 내일 모더나 35만회분 들어온다...50대·60~74세 미접종자 대상 /사진 뉴스1

- ▲ 최근 1주 확진 절반 이상이 ‘변이 바이러스’... 알파형(26%)·델타형(24%)
- ▲ ‘인구절벽’ 외국 기술자 유입 늘린다... “장기체류 확대”



- ▲ 조국 “김건희야말로 사모펀드 전문가... 왜 아들 입단나” /사진 뉴스1
- ▲ 환경부-삼성전자, 무공해차 전환 맞손... 2030년 2800대 전환 목표